

제공일자	2014. 10. 23(목)	담당자	임준환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28
			총2매

제목 : 최경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임준환 선임연구위원, 황인창 연구위원, 이해은 연구원은 『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CEO Report).
- 최경환 경제팀이 국내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(2012년 발표)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.
-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,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,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아베노믹스의 두 축인 대규모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 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제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.
 - 그러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·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됨.
-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 정책의 공통점은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개혁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임.
 - 하지만, 최경환 새 경제팀은 증세와 경기부양조치가 혼재되어있을 뿐 아니라 거시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

아베노믹스와 차이를 보여줌.

- 예컨대, 아베노믹스는 향후 10년 이내에 3%의 명목 경제성장률 달성과 2%의 인플레이션 추구를 명시화하고 있음.

□ 최경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- 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은 가계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임.
- 예컨대, 저물가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보다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정책타겟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- 또한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첨부 : CEO Report 『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』 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